칼 럼

장 기 채 주 필

우리 어른세대는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다

가로등 밑 들깨는 / 올해도 쭉정이란다. / 쉴 틈이 없었던 거지. / 너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여. / 지나고 봐라. 사람도 / 밤낮 밝기만 하다고 좋은 것 아니다. / 보름 아녔던 그믐달 없고 / 그믐 없었던 보름달 없지. /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다. / 어떤 세상이 맨날 / 보름달만 있겄냐? / 몸만 성하면 쓴다. 이정록의 시 '그믐달'이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자식에게 이보다 더 현명하고 따뜻한 다독거림이 있을까. 24시간 항상 밝은 데에서 자라는 들깨는 쉴 틈이 없어 쭉정이가 되듯이 사람도 밤낮 잘나가기만 하면 속이 비기 쉽다. 우쭐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어둠은 지나가기 마련이니 몸만 성하면 쓴다는 어머니의 말씀에서 삶의 자세를 배운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그렇게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웠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무엇인가 배우러 다닌다. 엄마는 자녀에게 첫 스승이고 가정은 자녀에게 첫 학교인데,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랑 보낼 시간 없이 밖으로만 나돈다. 이 모두가 세상사 흐름이다. 그러니 스승은 또한 어머니나 다름 아니다. 그 스승의 날이 오는 15일이다.

'스승의 날' 아무리 되뇌어 봐도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말인가. 그림을 잘 그리는 철수는 선생님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 할 것이다. 손뜨개를 잘하는 연희는 선생님께 한 땀 한 땀 수놓은 손수건을 드릴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토닥거리며 "정말 고맙다"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 눈가에 맺힌 정에 선생님과 학생은 참으로 기꺼워 할 것이다. 그 스승의 날에 그려보는 모두의 바람이다. 그래야 스승의 날 아니겠는가.

요즈음 교사들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부담'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한다.

왜 이렇게 스승의 날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신록의 계절 5월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우리는 4월의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 구석까지 뭉클하게 한다. 교육현장에서 그간 잊고 지낸 참 스승의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 풍습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또 있을까. 스승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려고 정한 날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준다.

"스승의 날이 뭐기에 우리를 이렇게 서글프게 합니까" 이 말은 '스승의 날'에 푸념하는 어느 여선생님의 넋두리다.

언제부턴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모두가 불편해진다. 오죽했으면 스승의 날 폐지 아니면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잘못된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끈으로 잡아매거나 빗장이나 자물쇠로 단단히 채우겠다는 셈이다.

언덕을 무너뜨려 깊은 못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못을 메웠다고 해서 또 물이 고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어쨌든 교육은 예를 가르치는 데 있다. 이러한 예의 근원을 실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승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스승의 날은 행사가 아니라 교육의 장인 것이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교사가 스스로 교사다운지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 역시 스스로 학생다운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퇴계 이황은 성의가 가득한 의로운 선물은 모두 받아야 할 것이며, 의롭지 않은 것은 모두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가벼운 물건은 받아서 절교하지 않는 뜻으로 보이고, 중한 물건은 물리쳐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 함을 역설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 들어 '스승'의 의미는 많이 퇴색돼 버리고 '제자' 들은 갈 곳을 잃었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학생과 교사가 뒤엉켜 학교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삶의 무게는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 스승이 필요한 때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는 교문을 활짝 열고 교사들에게 함박웃음을 안겨주는 5월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社 說

서민 시름 깊게 하는 물가인상

서민의 가슴을 '기름값 걱정'이 다시 짓누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해 말 한풀 꺾였던 국내 유가가 최근 들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올해 유류세 환원이 본격화되면 상대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류세 인하 폭은 오는 5월부터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휘발유차를 모는 김씨는 주유할 때 최소 L당 65원, 경유차를 가진 금씨는 46원의 가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내 기름값은 이미 장기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휘발유 가격은 L당 1441원을 기록했다. 전주보다 17.9원이 올라 10주 연속 올랐다. 경유값도 전주 대비 12.7원 오른 1328.9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기름값이 오르는 데 유류세 인하 폭도 축소되니 서민에게 이중 충격으로 다가온다.

높아지는 국내 유가는 정부에게도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올해 초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내 경기에 찬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계속 오르는 환율(원화가치 하락)도 국내 기름값에는 악재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는 전량 수입품이다. 이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환율이 오르면 사들이는 원유의 값도 자연스레 비싸질 수밖에 없다. 2월 초 1113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25일에는 1163원으로 4.5%가량 올랐다.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물가인상을 가능한한 자제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逐	쫓을	축	逐物意移
物	물건	물	▷뜻: 마음이 불안(不安)함은 욕심(慾心)이 있어서 그러함. 너무 욕심(慾心) 내면 마음도 변함.
意	뜻	의	
移	옮길	이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소방안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소방안전교육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등 관공서조차도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대형사고를 예를 들어보자 초기대응을 잘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더라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활용도 미미하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등 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실제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셋째, 안전교육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은 한시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남희 /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장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